

## 한국-일본 전문신문협회 '2024 한일합동 세미나' 성료

### '전문신문 미래전략'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 속 전문신문 역할 강조



'2024 한일합동세미나'에 참석한 양국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발행인)와 일본전문신문협회(이사장 이리사와 토루, 관청통신사 대표)의 '2024 한일합동 세미나'가 지난 5월 31일 경주 코모도호텔 금관A홀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일본 각 전문신문협회 소속 회원사 발행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전문신문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신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세미나에 앞서 김광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한-일 양국 전문신문협회

합동세미나가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문신문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양 단체가 더욱 화합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전문신문협회 이리사와 토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7년 만에 한일 합동세미나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세미나로 양국 전문신문협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대학교 법대학장을 역임한 조홍석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전문신문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저출산은 2002년에 시작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은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함께 피할 수 없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며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면서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18.4%가 되고, 2025년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대처 방안으로는 △위기 임산부 보호출산제 △산모도우미 제도 도입 △자녀육아 휴직제도

△외국인 기사도우미 제도 도입 △육아휴직 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출산휴가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종이신문의 구독감소 등 전문신문이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신문 창간 등 신사업 개척 △AI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카와이 요시노리 일본 전문신문협회 상임이사는 '전문신문의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지면신문의 구독감소와 격변하는 정보환경에서의 전문신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일본 역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운을 댄 뒤에 "일본전문신문협회도 구독부수 및 회원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회비 이외의 수입모델 구축과 생산성 향상 등 협회로서 그리고 회원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 측에서는 △양영근 가스신문 발행인과 백용태 국토매일 발행인이, 일본 측에서는 △마니와 마사히로 일본 전기협회신문 부장과 아리마 히로즈미 도쿄도보 신문 대표가 저출산과 전문신문의 당면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양영근 발행인과 백용태 발행인은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로 종이신문의 구독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발행부수가 줄어 들고 신문사들이 인터넷 뉴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뉴스로 대중들은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종이신문의 구독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갖춘 전문신문 인공지능, 가상화 페-반려동물 등 다변화된 전문적인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하고 인터넷 신문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아리마 히로즈미 부장과 마니와 마사히로 대표는 "일본도 한국처럼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그래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신문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산업구조 개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좋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종이신문 대신 전자신문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한 전문신문으로서의 심도 깊은 기사를 다루는 등 전문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화보 8-9면에 계속)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 2024 한일합동세미나 지원에 감사의 뜻 전해

## 협회, 제251차 이사회 개최...협회보 연 4회 발간 결정 등 협회 비용절감 토의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는 지난 6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5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두한 명예회장, 정재환 부회장, 오경섭 감사, 이근호 이사, 박연준 이사, 김종규 이사, 전우승

상무(대리참석)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이사회에서 김광탁 회장은 협회 임원사 및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2024 한일합동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쳐게 된 점에 대

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제1호 의안, '2024 한일합동세미나 결산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 의결되었으

며, 이어 하현봉 상근부회장이 상반기업무보고 및 재정보고 그리고 하반기 주요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기타 토의사항 시간에는 협회의 비용절감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그 결과 △월간으로 발행하던

협회보를 2024년 하반기부터 연 4회만 발행 △회비 장기 미납 회원사(8개사)에게 회비 납입을 독려 △연회비 일괄 납부시 적용하던 5% 할인제도를 2025년부터 임원사에 미적용 △우수기사상 시상식 일정은 협회 사무국에서 논의 후 계획 △전문기자 연수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논의하여 하루 일정으로 진행 등이 의결됐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대전환 속 경제·산업 위기...디지털 혁신·AI로 새 시대 맞는다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발행인 방재홍)이 창간 19주년을 맞아 'AI·기후·인구·산업 대전환시대 기업이 나아가길'을 주제로 창간 19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지난 1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콘퍼런스 개막에 앞서 방두철 서울미디어그룹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전환의 핵심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안을 분석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대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을 '아는 만큼 변화할 수 있

다'라는 뜻으로 바뀌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번 콘퍼런스가 그 '알'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에는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와 정승태 한국생산성본부 환경기후변화컨설팅 센터장,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 연구위원,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실장 등 해당 분야 주요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콘퍼런스는 대전환 시기 AI·기후·인구·산업 등 주요 분야 변화 양상과 각종 문제를 진단하고 진화하는 기업 생존 전략과 핵심 모멘텀을 공유하기 위한 혁신의 장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 과정에 필요한 핵심 전략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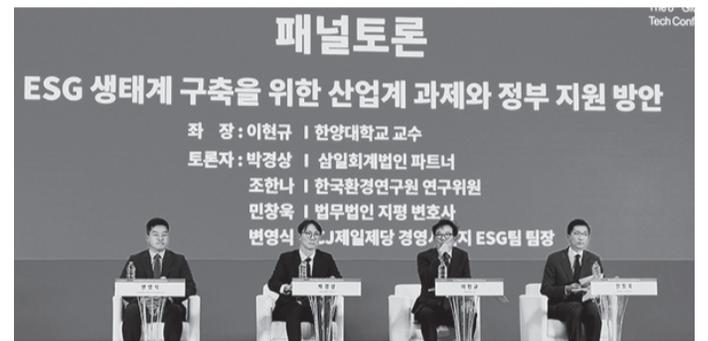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근우 변호사가 '기업의 AI,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사례와 법적 이슈 대응'을 주제로 기업의 AI DX 대표 사례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법적 이슈와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승태 센터장은 '탈탄소로 귀결된 기후위기 산업경쟁력-ESG·RE100 전략'을 주제로 기후문제 확대에 따른 실물경제로의 위기 확산과 그 과정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게 될 시스템적 한계 및 리스크를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와 인력 문제'를 주제로 진행된 김천구 연구위원의 강연 차례에서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영향 △AI 기술과 인력 문제 등에 대한 분석이 제시됐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박용정 실장은 '산업대전환시대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과 경제·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식품 기업 ESG, 적극적인 정량·재무적 관리 필요



### 식품음료신문

식품음료신문(발행인 이근호)이 서울푸드 2024의 글로벌 푸드 트렌드&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식품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 콘퍼런스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트라가 주최하고 식품음료신문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삼일회계법인의 박경상 파트너는 '식품산업과 ESG'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해 우리 식품업계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공급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평가하고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정량적, 재무적으로 대응, 관

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환경연구원의 조한나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식품산업의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바 기후경영을 포함한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제도 변화로 인한 '전환적 위험'과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 대응해 지표와 목표를 선정해 실행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인권이슈와 인권 경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식품 산업의 다양한 인권 이슈와 발생 원인, 인권경영 사례와 평가 기준, 인권 실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CJ제일제당의 변영식 팀장은 "현재 CJ제일제당은 협력사와 계약을 진행할 때 ESG행동 규범에 대한 준수 서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협력사에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육하며 자발적으로 개선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며 "자체적으로는 수많은 협력사의 ESG 진단 점검이 쉽지 않아서 협회와 식품업체 5개사가 ESG 리스크 진단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향후 더 많은 회사가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ESG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와도 협력을 통해서 식품산업에 특화된 ESG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진단된 결과들이 공신력을 얻을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의약학계 오피니언 리더 6명 새로 탄생

### 의학신문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은 올해 의약평론가 6명을 추천하고, '제47회 의약평론가 기장수여식'을 지난 5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했다.

올해 '의약평론가 기장수여식'에서는 △박정을 고려의대 신경외과 교수 △박홍준 소리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장 △이은혜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교수 등 4명의 의사평론가로, △박광식 동덕여자대학교



약대 교수 △이석용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 등 2명(가나다순)이 의사평론가로 선정돼 평론가증서와 추천패를 받았다.

이날 박연준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저희 신문사는 그동안 의약 전문신문의 역할을 다하며, 의약학계의 참다운 발전을 이끄는데

필요한 여론을 주도할 리더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976년부터 의사, 약사평론가 추천 제도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의약평론가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전문영역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학신문은 새로운 의사, 약사평론가에게 평론가 증서와 추천패를 수여하고, 의약학계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임 의약평론가들에게 후원사인 JW중외제약에서 기념패를 증정했다.

■ 협회보 칼럼



# 독자로서 갖춰야 하는 예의

**“왜 읽는가? 저는 세상을 사랑할 새로운 이  
유를 발견하기 위해 읽습니다. 또한 이 세  
상을 뒤로한 채 저의 상상 너머, 저의 지식과 인  
생 경험밖에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공간  
으로 들어가기 위해 읽습니다.” (매리언 울프)**

출근하기 전에 책장을 둘러봤다. 읽었던 책  
과 익혔던 책들 사이에 곱씹었던 문장들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 많던 문장들은 다 어디  
로 사라졌을까. 글은 자극과 위로 때론 보통  
의 언어 속에서 나를 깨워주었다. 참 아이러  
니하게도 독서란 딜레마요, 모순덩어리다. 그  
러니 읽지 않을 수 없는 속박이다. 가장 좋았  
던 책을 골라 출근길에 넣었다. 한스 기벤라

트, 니나, 조르바와 바틀비와 같은 멋진 주인  
공들과 만남의 길은 언제나 순간의 기억이  
좋았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  
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읽는다는 것이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선불리 말할 수 없  
다. 단순히 읽는다는 것에 벗어나 꾸준히 읽  
고 그 순간들을 기억해야 할 자세가 필요하  
다. 그 자세는 읽는 독자로서의 예의다. 읽는  
독자로서의 예이란 책 속의 글귀나 문장을  
스쳐가는 것보다 이해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라 하겠다.

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동네책방에서 사  
들인 모든 책들에게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읽고 또 읽는 것 외에 한 번쯤은 제  
목에서 표지에서 부제목에서 깊은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처럼. 작가의 이력을 살펴보

며 그의 삶의 밑거름을 들여다보거나, 프롤  
로그에서 글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은 읽는 독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세  
이겠다. 책에 대한 예의만 갖춘 독자라도 독  
서는 나에게 들어오는 길목이다. 그 자세를  
잊지 않을 때 독자는 꾸준히 성장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독자가 지녀야 하는 몇 가지 예의를 소개  
하자면, ‘책 표지를 유심히 살펴볼 것’, ‘항상  
궁금함을 열어가는 태도를 지닐 것’, ‘중요한  
문장에 메모하고 줄을 그어 오롯이 나의 것  
으로 받아들일 것’,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볼  
것’ 등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독자가 가져야 할 예의는 많을 것  
이다. 책을 읽고 한 번쯤 자신에 맞는 독서 예  
의를 습관적으로 길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인과의 예의

는 필수요소이듯이 읽는 독자가 갖추어야 할  
예의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책이 지닌 다  
양한 속성과 쓰고 그린 작가에게 하나의 눈  
길을 주어 그 가치를 충만하게 만든다. 정체  
되어 있던 나의 독서 시간을 다시 한번 되짚  
어 볼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도와주기에 더  
없이 그 예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책 읽는 독자가 가진 예의는 그 사  
람의 품격이며 앞으로 읽을 책들에 대한 예  
의다. 그 습관은 오래갈수록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좋은 습관은 성숙한 독자  
로 가는 밑거름을 주고, 그렇게 쌓인 밑거름  
은 의식과 사고를 확장하는 일이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책을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기  
는 독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독서 문화시  
민으로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덧붙인다.

방재홍 상임고문(독서신문 발행인)

## 협회 산우회, 6월 전문신문 건강걷기 진행

전문신문산우회(회장 양영근)가 '전문신문 건강  
걷기' 네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8일 진행했으며, 한국전  
문신문협회 김광탁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신금호  
역에서 모여 금호산 응봉친화숲길에서 매봉산 치  
유의 숲길까지 이어지는 강북 도심 속의 숲길을  
산책하며 '서울시 우수 조망명소'를 탐방했다. 이  
번 트레킹 코스는 양영근 회장이 안내하며 회원  
들과 소통했다. 다음 일정은 7월 6일에 진행할 예  
정이다.

전문신문 건강걷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진  
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  
(02-334-72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이번달 열린 '전문신문인 건강걷기'에 함께한 회원들이 트레킹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협회보 칼럼모집

◆ 원고내용

각 산업별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

◆ 대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접수방법

웹하드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mailto:kosna1964@naver.com)

◆ 문의

☎ 02-334-7251~2

##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가입 안내

### ■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

- 가. 가입자격 : 전문신문(인터넷) 발행인·대표이사 또는 발행법인
- 나. 가입절차 : 입회원서, 발행인 카드, 회원사 카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입회비와 함께 본 협회 사무국에 신청.
- 다. 회비내역 : 입회비 - 700,000원  
월회비 - 90,000원 \*연회비로 선납시 5% 할인
-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01-1135-182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신한은행 : 100-003-283205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 문의 :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02-334-7251~2

### ■ 협회 주요사업

- 가. 협력업체를 통한 신문 제작, 편집, 인쇄, 발송, 홈페이지 관리 경비 절감
- 나. 전문신문 육성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다. 전문신문협회보 발행, 배부를 통한 홍보
- 라. 전문신문편집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
- 마. 정부공익광고·기업광고 수주 및 회원사 배정
- 바.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 사. 정기간행물 납본 대행 - 국립중앙도서관
- 아. 각종 캠페인 및 광고주/유관단체장과의 좌담회 개최
- 자. 경영인 세미나, 기자연수교육, 강연회 개최
- 차. 한국전문신문상 및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 카. 정기간행물 신규 및 변경등록 대행
- 타. 전문신문의 이행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 더위 이긴 鐵道人의 ‘힘’... 제2회 철도인 한마음 오픈대회



## 철도경제신문

철도경제신문(발행인 백용태)은 지난 14일 오후 12시부터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코스카컨트리클럽에서 '제2회 철도인 한마음 오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협회,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철도시설협회,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한국철도건설협회 등이 후원했다.

또한 현대로템을 비롯, 우진산전, 대아티아이, DNV, 그리고 로만시스, 삼표레이블웨이, 이스턴알앤이, 신우이앤지, 세화, 씨에스아이엔테크, 에스 트랜스포트, 서우건설산업, 현대건

설, 시버리솔루션스 등 기업에서 협찬했다.

2회째를 맞이한 이번 철도인 한마음 오픈대회에는 단체전 84명, 개인전 40명 등 총 31팀, 124명이 참가해 메이플·파인·릴리 등 3개 코스로 나눠 경기를 진행했다. 경기가 끝난 후, 오후 7시부터 환영만찬과 시상식을 진행했다.

백용태 철도경제신문사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해 11월 '철도인 한마음 오픈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는데, 각 분야에 계신 많은 철도인들이 참석해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게 됐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철도인들을 다시 뭉치게 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도 '신페리오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또 공정한 경기 운영과 접수 집계 등을 위해 창상훈 우송대학교 교수가 경기운영위원장을, 정주원 KPGA 프로와 민인숙 프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위원을 맡았다.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은 철도신호기술협회가 거머쥐, 상금 100만 원과 우승 트로피를 수상 받았다. 준우승은 씨에스아이엔테크가 차지했다.

개인전에선 심규식 전기철도협회 감사가 차지해, 상금 100만 원과 우승트로피를 받았다. 고준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단장이 준우승을 받았다.

이날 73타를 친 공선용 엘더스티앤엘 부회장은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메달리스트에 등극했다.

# '2024 전문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 연수단 뉴질랜드 출국



##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발행인 홍준)은 '2024 전문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 연수단을 꾸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대학신문이 주최·주관하고 뉴질랜드교육진흥청과 호주 퀸즐랜드 무역대표부가 후원했다.

이번 연수단은 뉴질랜드와 호주 2개국을 방문하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와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직업교육 모델'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전문대 총장과 보직 처장으로 구성된 서밋 연수단은 지난 12일 오후 뉴질랜드로 출발했다. 연수단은 먼저 뉴질랜드교육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을 방문해 뉴질랜드의 고등직업교육에 대해 알아봤다. 이어 뉴질랜드 대표 국립기술공과대학교인 웰텍(Wellington Institute of Technology, Weltec), 관광업계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퀸스타운 관

광전문대학(Queenstown Resort College, QRC) 캠퍼스를 탐방하며 정부, 지역과 연계한 고등직업교육 체계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동해 퀸즐랜드 무역대표부(Trade and Investment Queensland, TIQ)에서 호주 직업교육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또한 제임스 쿡 대학(James Cook University), TAFE 로비나 캠퍼스(TAFE Queensland Robina campus)를 방문해 지역연계 직업교육, 주정부 고등직업교육 시스템과 연계한 인재 양성, 호주의 TAFE 시스템에 대해 짚었다.

한국대학신문은 뉴질랜드, 호주 기관·대학을 방문하는 틈틈이 현지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프레지던트 서밋을 개최했다. 호주·뉴질랜드 고등직업교육 혁신 현장을 들여다보고 국내 고등직업교육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2차 서밋에서는 박지건 TIQ Korea 교육사무관이 참석해 호주의 고등직업교육 현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 새 총회장 류승동 목사 "젊은 목자들 돕겠다"

## 한국성결신문



한국성결신문을 발행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단 제 118년차 총회장에 류승

동 목사(인후동교회)가 선출됐다.

지난 5월 29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총회 둘째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총회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에 입후보한 류승동 목사를 비롯해 서기 양종원 목사(행복한복성교회), 회계 문형식 장로(대평교회), 부회계 조성환 장로(공주교회) 등 단일 입후보자들에게 대한 당선을 공포한 후 경선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3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안성우 목사(로고스교회)가 2차 투표 끝에 당선됐다.

신임 총회장 류승동 목사(사진)는



취임사에서 "제118년차 총회장으로 섬기는 동안 교단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목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젊은 목회자를 돕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총회 회의 중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처리에서는 한국성결신문 관련된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먼저 현행 헌법 제76조(총회의 회무) 4항 라호 '총회는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단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은 독립하여 운영하되...'로 명시하고 있는데, '독립 운영' 부분은

삭제하는 개정안과 제75조 2항 타호 총회에서 한국성결신문 운영위원과 감사를 공천토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재석 인원 619명 중 314명의 찬성으로 헌법개정 요건인 2/3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헌법 제76조의 13항과 14항을 총회 협의기관인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 총회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부결처리 됐다.

이밖에 헌법개정안 23건과 시행세칙 개정안 3건 등 26건의 개정안이 '타당하다'로 상정돼 대부분 이견 없이 통과됐다.

# '한국 외식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주제로 토론



##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발행인 길경민)은 올해 창간 43주년(5월 25일)을 기념해 경기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에서 '제11회 농축수산물 초청 트레킹' 행사를 가졌다. 지난 43년의 세월 동안 농수축산신문에 보내준 독자와 농축수산업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신성범 국민

의힘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 농축수산물 관련 기관장,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농축수산물 관련 단체장, 박서홍 농경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농협 관계자,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김명환 GS&I인스티튜트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농수축산신문의 창간을 축하하고 진목을 나눴다.

[ 보건신문 창간 58주년 발행인 기념사 ]

## 정부-산업계-국민 잇는 건강한 전문언론으로



유태우 발행인

1966년 6월 보건산업 발전을 기치로 첫발을 댄 보건신문이 올해로 창간 58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거치면서 열악했던 국내 보건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다툼을 할만큼 눈부시게 발전했고, 보건신문도 보건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보건신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애독자 여러분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차세대 수출 유망산업으로 우뚝 선 국내 보건산업은 이제 '글로벌 강국'으로의 진입

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보건산업은 그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엔데믹 전환에 따른 백신·진단기기 수출 감소로 주춤했던 보건산업 수출은 올해 1분기 59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했습니다(보건산업진흥원 발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보건산업은 이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은 여전히 안갯속 정국입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는 전면 휴진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집단휴진 동참 의사를 밝혀,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한다고 밝혔지만,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환자를 생각하는 의료진이 되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내 의·정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의료정책이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대체의료에 대한 전 국민적 갈망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지침·서금요법과 같은 대체의료는 의료인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홈 헬스케어'의 한 축으로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고령화되

는 우리나라에서 대체의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간 이후 보건신문은 국내외 보건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 업계가 나아갈 바를 제시해 왔습니다. 정부와 산업계, 국민을 잇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차별화된 전문콘텐츠 개발에도 힘써 왔습니다.

창간 58주년을 맞은 보건신문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깊이 새기고,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건강한 전문언론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신문 창간 58주년 특집-1 ] K-제약바이오 R&amp;D 생존전략

## 차세대 수출산업 급부상... '기회의 땅' 세계로 간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성장세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도 차세대 유망 수출산업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업계는 글로벌 성장 전략 마련에 분주하며, 그 어느 때보다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행보도 발 빠르다. 지난 3~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USA 2024)'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이 참여했다.

한국바이오협회와 KOTRA가 공동 운영한 한국관은 올해로 21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 신약개발 분야 외에도 플랫폼 기술, 위탁 서비스, 의료기기 등 28개의 기업·기관을 지원했다.

BIO US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바이오 컨벤션이다. 88개국 9000여개 바이오 기업이 참여했으며, 참관객만 2만명이 넘는다. 국내 기업은 올해 등록한 곳만 228개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알테오젠 등이 글로벌 진출 사례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올해 바이오 USA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위탁개발생산(CDMO)이다. 특히 올해는 BIO의 생물보안법 지지 선언으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불참하면서 국내 CDMO 업계는 반사이익도 기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체들의 첨단신약 개발 움직임도 거세다. 차세대 항암제는 물론 세포·유전자 치료제, 방사능 치료제 등 분야도 다양하다. 미래 바이오 먹거리 확보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항체-약물 접합체(ADC)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개발경쟁이 치열하다. ADC는 차세대 항암 치료 기술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ADC 치료제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에도 바이오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CGT는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 결함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암 세포만 골라 죽이는 카티(CAR-T·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가 바로 유전자 변형 세포치료제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기반 비만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기식·화장품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도 활발하다. 글로벌 건기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은 동남아를 넘어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세계 시장을 겨냥해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혁신기술과 신소재를 탑재한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위해 R&D 투자도 대폭 늘렸다. 여기에 더해 기존 시장을 대체할 사업 다각화와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보건신문 창간 58주년 특집-2 ] 초고령화시대 만성질환 관리

##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 늘어나는 진료비 대책 시급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73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9%로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통계청).

초고령사회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각종 노인성 질환 증가와 이에 따른 노후 의료비 증가로 직결된다. 노년기 대표적인 질환이 퇴행성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는 국민 건강수명 연장도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정부의 정책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실버 헬스케어의 패러다임도 기존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급변하고 있다. 노년기 만성질환은 암·치매부터 심장병·고혈압·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폐질환, 비노기계질환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만성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발병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 또한 필수다.

초고령사회 노인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와도 밀접하다. 의료 현장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의 도입으로 시작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AI)이나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디지털 디바이스와 결합해 노인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특히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노인의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 빅데이



터와 각종 의료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확대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노인건강관리의 주체인 의사와 약사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 지역사회가 함께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인 대상 장기 요양과 돌봄 연결을 위한 통합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9일 개최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서 약사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제관 사무관은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7명에서 2030년 51.4명으로, 또 2070년에는 116.8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공적 돌봄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구 사무관은 "초고령사회 의료·돌봄은 제공자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은 강조했다.

[ 의학신문 창간 53주년 특집 ] 국내 의료AI 선도 기업 초청 기획 좌담회

# 국가 신성장 동력 '의료AI' 현안 진단

의학신문은 창간을 맞아 국내 선도 의료 AI 기업을 초청해 진행한 기획 좌담회를 통해서 국내 의료 AI 시장 상황 및 산업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과 업계가 바라는 인제상 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한 질문도 더하며 다양성과 깊이를 더했다.



좌담회 참석 기업은 다음과 같다. △답바이오-곽태영 CTO △메디웨이-이근영 CPO △에이아이트릭스-김광준 대표 △웨이센-김경남 대표 △코어라인소프트-장이식 이사. <가나다 순>

**Q.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바이오 곽태영 CTO(이하 곽):** 전체적인 의료 전체 AI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5위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의료에 한정해 놓고 보면 자본의 규모가 시장에 결정하는데 큰 요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충분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데 자체에 흘러들어오는 자본 규모가 작아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는 측면이 있다.

**메디웨이 이근영 CPO(이하 이):** 대한민국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전산화가 일찍부터 됐다는 사실에서 앞서나가고 있고 AI 개발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모든 성인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고 우리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만들었지만 의료 데이터가 잘 모여져 있는 국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AI 헬스케어에서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이하 김):** AI 시장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AI 학습을 시키거나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데이터의 질이나 양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솔루션이 얼마나 잘 팔릴 거냐 즉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걸 사용하거나 만들어내는 리서처라든지 아니면 의료진들이 있을 텐데 상중하로 구별해보겠다. 데이터의 수준은 중, 시장 규모는 하, 의료진이나 리서처의 수준은 중에서 중상 정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경쟁 우위를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웨이센 김경남 대표(이하 김):** AI를 전제로 보면 글로벌 NO.1이 미국이고 그다음은 중국이 2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활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위상은 중간 정도인 것 같다. 앞서 IT 강국으로 도약했던 사례가 있듯이 AI

루선 자체도 IT 기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타피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 포함하고 해당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해 IT 강국 이미지들이 어우러진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탑3에 반열에 오를 것으로 확신한다.

**코어라인소프트 장이식 이사(이하 장):** 사실 전 세계 의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AI 분야에 있어서는 영상 판독을 비롯해 빠르게 솔루션을 도입하고 니즈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다만 파트너십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다이렉트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해외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다면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의료 AI 분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향은? 또 관련 단체들에게 바라는 활동이 있다면?**

**답:** 업계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은 느낀다. 다만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너무 제한적이다. 결국 건강보험이라는 체계 아래 이뤄지는데 플레이어들이 노력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박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많지만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경직된 부분을 해소하고 개발과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에:** 연구 과제를 통한 마중물을 부어주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좌담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각 보다 많아 버틸 수 있었고,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풀어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먼저 그레이존이 많다. 헬스케어나 의료기를 나누는 인허가 부분은 의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다. 더불어 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고 정책도 변화하는 흐름이 있겠지만 변화가 심하다면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5년 정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웨:** 국내에서 인허가 및 각종 평가를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타국을 진출할 때 협약을 맺어 파트너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그리고 역시 레퍼런스를 만드는 부분이 트랙을 원만하게 가야하는데 바늘구멍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세상은ダイナ믹하게 가고 있고 아무

[ 의학신문 창간 53주년 발행인 기념사 ]

# 대한민국 의료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박연준 발행인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의학신문이 오늘(5월 24일) 창간 53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신문사 임직원들은 53주년이란 역사에 자만하지 않고,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해 나갈 책무를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독자 여러분이 의학신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 깊이 성찰하여 기호에 맞는 맞춤형 신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건강을 지키고,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기여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시책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심화되어 있고,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대형 수련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관 산업계도 큰 영향을 받아 시장이 위축되는 등 연쇄적인 파급 효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노정된 의·정 갈등이나 논란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나 의료계 모두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생각이나 입장은 올바른 협상의 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 수 증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전공의 교육체계의 혁신이나 필수의료체계의 확립 등 의료개혁방안이 중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한꺼번에 이루자면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를 정하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더 이상 대립 구도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건강과 사회의 안녕, 특히 대한민국 의료와 보건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에 있어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국가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이해와 타협에 나설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상은 지금 변화와 혁신이 시시각각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유관 보건산업계 역시 '코로나 19' 암흑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에 나서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한시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책 현안과 제도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 답보하거나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의·정 사이에 불거진 갈등 관계를 풀어 흐트러진 의료부터 정상화를 이루고, 미래지향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도출하는데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갔으면 합니다.

의학신문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와 의료전문가 집단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력하며 국민건강증진을 기하고, 의료의 참다운 발전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발전에 필요한 첨단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면서 의료가 시장에 기반한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제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보다 큰 힘을 쏟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 혁신 기술이 나와도 경쟁 제품이 나오는 것은 순간이다. 유연성이 필요하고 결국 제도 완화가 절실하다.

**코:**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계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비급여 트랙으로 가더라도, 리미터를 정하며 여전히 많은 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동시서 반기와 같은 절차들이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절차들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임상 적용 후 실제 시장 진출까지의 과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프로세스를 완화하고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야 해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다.

**Q. 지면을 통해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답:** NVIDIA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의료 AI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도, 우리나라는 제한된 자원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시장이 충분히 커지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독자들도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의견과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웨:** 다시 한 번 의료 데이터 댐 사업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학교나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 AI는 대세이고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의사결정권자들이 병원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서 좀 더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코:**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공감했다. 자본력이 되는 기업들은 M&A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자본력을 갖출 수 없는 스타트업이 보기에는 결국 1등 기업만 살아남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생긴다. 결국 어떤 국가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장을 좀 넓게 보고 트렌드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 원예산업신문 창간 29주년 발행인 기념사 ]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 모을 때



박두환 발행인

원예산업신문이 창간 된 지 어느덧 이립(而立)의 나이를 한해 앞두고 있다. 29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우리 원예업계에 올해와 같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은 해가 있었을까 싶다.

사과 가격이 금값으로 둔갑되고 대파가 정치계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하며,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정치·경제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그 중심에 와 있다는 부분이고, 이는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원예산업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장마, 한파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이제 어느 분야에서든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기후에 민감한 농업분야로서는 지형의 변화까지 요구되는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 농업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아열대 작물의 재배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이미 많은 남부지방 농가들이 천혜향, 망고, 바나나와 같은 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기도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가도 생겨났는데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

응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고, 그에 맞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 기술의 도입도 필수적이다. 스마트팜은 농작물의 생육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도, 습도, 토양 상태를 최적화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방법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농업 재해 보험의 확대와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별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기후 변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농업 기술의 혁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협력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정부, 농업인, 연구기관,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원예산업신문도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창간 2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원예분야 정통 전문언론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 드리며, 항상 저희 신문사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예산업신문 창간 29주년 기획 ] 위기의 원예산업 돌파구 찾는다

##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기본은 '산지조직화'

지난해부터 이어온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상황이 어려웠다. 최근 기상 여건이 호조를 보이며 수급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사과·배 생산이 급감해 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며, 올해도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장애를 입은 원예농산물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었다.

원예산업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위기의 원예산업 돌파구 찾는다' 주제로 창간기념호를 제작하면서 농산물 수급과 관련한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 사회 = 올해의 원예농산물의 작황 상황은?



**▲이기용 전국품목농협 조합장협의회장** = 올해는 지역별 개화시기가 예년 평균 수준으로 온도도 안정적이었고 지난해와 같은 저온 현상으로 인한 착과 장애가 줄어들어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평년 수준으로 작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기상여건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성진 창원원예농협 조합장** = 올해의 작황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예측이 어려울 것 같다. 올해는 특히 생육기 동안의 기후 조건이 양호해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적인 이상 기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업인들은 작물의 다양화와 기상재해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 올해 역시 기상이변(겨울철 이상고온, 강수량 증



대, 일조량 감소)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일조량 감소 및 겨울철 고온으로 인한 양파·마늘 병충해 증대가 예상되며 수확량은 전년 수준에서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전망에 더해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산지 농협 등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결과, 5월 현재 과수 등 주요 원예농산물의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저온, 우박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사과·배 등 과일류는 전년보다 저온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다만, 2~3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채소류의 2024년 작황이 일부 부진하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 가능하다.

**사회 = 정부의 지나친 수급조절 정책으로 현장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수급·가격 형성을 위한 방안은?**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수급 예측 모델을 활용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조절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동희 제주배원예농협 조합장** =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및 가격형성의 기본은 산지조직화이다. 품목별 주산지협체를 활성화 하고 각 지역별 계약재배를 확대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민은 소득안정을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는 농민에게 지원해 농산물가격의 등락을 줄여야 한다.

**▲배정섭 조합장** = 수급조절을 위한 기준단가가 산지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급조절회의의 기능을 강화해 정비·비정기적으로 기준단가 변동을 시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수급조절 가격을 시장가격 하락을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생산기반 및 유통여건의 변화와 확충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및 안정적 수급체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신우식 과장** =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선제적 수급조절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정확한 관측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돼 주산지별로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토록 지원하고, 정부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비해 채소가격안정제 등 위험관리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 및 농업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 정부의 가격할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속적인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농가와 소비자 만족도를 방안은?**

**▲이성진 조합장** = 지속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록 한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관리와 마케팅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인식을 높여야 한다. 자연재해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농업 보험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윤천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일시적인 가격할인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해결이 되겠지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기후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지원을 함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스마트 팜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와 천재지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에서 채소를 키우는 식물공장이 실현되는 시점에 우리농업환경은 빠른 변화에 적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 = 최근 농산물 수급에 따른 농산물 가격 결정 문제가 유통 구조개선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유통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최현식 한국농산물유통산업협회 박사** =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발 견하는 곳이 가락시장이자. 가락시장이 생기기 이전까지 농업인은 도매상(위탁상)과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가락시장으로 대변되는 공영도매시장이 만들어 졌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생산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협 등의 생산자단체가 개설하는 공관장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신우식 과장** = 농산물의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이 전달되는 유통 경로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할 필요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범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5월 1일 마련했다.

#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2024 한일전문신문 합동세미나

## 전문신문 당면문제 직시...다변화된 신사업 필요성 공감



'2024 한일합동세미나'에 참석한 양국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탁 회장

이리사와 토루 이사장



양국 협회 임원단이 한국전문신문협회에서 준비한 환영 축하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 2024 한일전문신문 합동세미나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사 및 직위
회장	김 광 탁	내외뉴스통신 발행인
명예회장	박 두 환	원예산업신문 발행인
고문(전회장)	함 용 헌	약업신문 회장
고문(전회장)	김 시 중	한국섬유신문 명예회장
고문(전회장)	유 태 우	보건신문 발행인
고문(전회장)	양 영 근	가스신문 발행인
고 문	이 양 희	한국전문신문협회
부 회장	함 정 기(代이민규)	정보통신신문 발행인
부 회장	김 관 흥	메디칼업저버 발행인
부 회장	김 종 철	한국임업신문 발행인
감 사	백 용 태	국토매일 발행인
감 사	오 경 섭	일요저널 발행인
이 사	박 연 준	의학신문 발행인
이 사	김 중 규	장업신문 대표이사
회 원	김 관 현	한국식약경제신문 발행인
회 원	조 경 욱	농업축산신문 발행인
구분	성명	소속사 및 직위
이 사 장	이리사와 토루	관청통신사 대표이사/사장
부이사장	이시이 사다노리	여행신문사 대표이사
부이사장	츠미타 토모코	관광경제신문사 대표이사/사장
전무이사	스가이 리츠오	일본전문신문협회 전무이사
전무이사	카와이 요시노리	건설신문사 대표이사/사장
상임이사	하야시 하츠오	일본공업경제신문사 대표이사
이 사	마니와 마사히로	일본전기협회 신문부장
감 사	아리마 히로즈미	도료호치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정치연맹 간사장	코야 카츠시	카엔레저뉴스 대표이사



2024 한일합동세미나 참석자들이 천년고도 경주시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별기고 |

### 한일전문신문 합동세미나 토론 요지

한국전문신문협회 전 회장 양영근

#### ◎ 주제발표

- 1)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전문신문의 역할 : 조흥석 대구문화포럼 회장
- 2) 전문신문 미래발전 전략 : 카와이 요시노리 일본전문신문협회 전무이사

#### ◎ 토론자

- 1) 한국전문신문협회 전 회장 양영근(가스신문 발행인)
- 2) 한국전문신문협회 감사 백용태(국도매일 발행인)
- 3) 일본전문신문협회 이사 마니와 마사히로(일 전기협회 신문부장)
- 4) 한국전문신문협회 감사 아리마 히로즈미(도료호치신문사 대표이사)



양영근 전 회장



백용태 감사



마니와 마사히로 이사



아리마 히로즈미 감사



주제발표자인 조흥석 회장(사진 왼쪽)과 카와이 요시노리 전무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택 회장(사진 왼쪽)이 이시라와 토루 이사장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먼저 제1주제 저출산문제는 한일 양국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주의깊게 잘 들었습니다. 조흥석 회장님께서 발제하신 저출산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본 토론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말을 잘 달리게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정책은 온통 당근만 있고 채찍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3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가고 출산율 0.72명이라는 기가 막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엉뚱할지 모르지만, 젊은 여성들도 남성처럼 군대에 징집하면 결혼율, 출산율, 양성평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해서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은 군 징집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출산율 3%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여성 징병 국가 출산율 : 미얀마 2.15%, 덴마크 1.72%, 스웨덴 1.66% / 현재 우리나라 모병 여군은 5%)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군의 상비병력은 50만명인데, 2022년 입영대상 병역 가용자원은 33만 4천명, 2035년에는 22만 7천명, 2041년에는 13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요즘 전쟁은 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키보드 두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차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전문신문들이 여성 징병의 불가피성을 지금부터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조흥석 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다음은 제2주제 가와이 전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무님 발표를 보니 양국 전문신문협회의 회원사 감소 추세가 동병상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쇄매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문신문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정착시켜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의 전문신문은 쓸만한 신입기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물론 대학의 언론·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매년 많은 예비 기자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신문이나 유튜브 등을 선호하며, 종이신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일본 전문신문의 기자 구인 실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한국의 전문신문들은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기업승계를 통해 2세 경영체제로 변화하

는 신문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본 전문신문의 경우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시는 전문신문의 기업승계의 장단점과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 추가토론

한국에는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를 종합하여 무료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니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신문은 이를 한탄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차별화된 전문기사를 만들어 선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범용의 보도자료나 쟁기고, 타 매체 베끼기나 하는 무늬만의 전문신문은 빠르게 도태될 것입니다.

결국 시대 상황에 걸맞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기자를 육성하고, 이들이 발로 뛰면서 나만의 특별한 정보를 발굴할 때, 그리고 충성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현장 기사와 실사구시의 기획·이벤트를 자주 생산해 내는 전문신문만이 지속가능경영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은 팀 제고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방청석에 잠시 현황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문사에서 자사의 인터넷신문 보도기사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5개국어로 동시에 번역 서비스되고 있는 신문사 대표님은 손을 들어 주세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신문사는 여러분의 웹 관리회사에 가스신문(엔디소프트 웹프로그래머)

과 같이 5개국어 번역 기능 연동을 요청하면 비용 들지 않고 구글의 번역프로그램과 여러분의 인터넷신문이 자동 연결되어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의 인터넷신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식품외식경제 창간 28주년 기획 ] 소비자 기호·취향따라 변화무쌍한 식품·외식업 트렌드

# 초저가 '외식' & 스몰럭셔리 '디저트' 인기 공존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식품·외식업계는 이런 말이 무색하게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특히 외식업은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업종으로 메뉴 트렌드 및 콘셉트가 변화무쌍하다. 식품외식경제 창간 28주년을 맞아 혼돈의 카오스를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목을 받았던 히트 메뉴와 디저트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HMR 시장과 최근 외식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집밥'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더욱 다변화되고 있는 식품산업 등 트렌드에 대해 조명해봤다.

엔데믹 이후 식품·외식·유통업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소비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외식업계는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버티다 못해 메뉴 가격을 올렸지만, 외식비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외식 대신 집밥'으로 선회하거나 '초저가' 업소에만 고객이 몰리고 있다. 식품 및 유통업계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제품 출시를 가속화하고 특화매장 오픈 등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면서 공급망 확대에 나섰다.

**초저가, 무한리필 뷔페만 살아남은 외식업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외식시장 규모는 177조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44조3920억 원이었던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139조8900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150조7630억 원으로 회복했고, 2022년에는 177억1226억 원으로 연이어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22.7% 성장했다. 그러나 식재료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 공급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메뉴 가격 인상분을 감안하면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맞아 가파른 외식비 상승은 외식 소비 트렌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초저가, 초가성비로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등 고급 레스토랑에 외면받았던 초저가 무한리필 뷔페를 표방하는 업소들이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처럼 2010년대 중반 유행했던 패밀리레스토랑형 뷔페, 무한리필 고깃집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명륜진사갈비, 이랜드그룹에서 운영하는 애슐리 퀸즈와 자연별곡, 청년고기장수, 육미제당, 쿠우쿠우,

고메스퀘어, 다이닝원 등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애슐리, 빕스, 아웃백 등을 포함한 뷔페형 패밀리레스토랑의 2020년 매출은 약 20% 역성장했고, 매장 수 역시 빠르게 감소해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16%나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무한리필 형태의 뷔페 시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외식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뷔페 이용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고기테마파크를 표방하는 명륜진 사갈비는 1만9900원의 가격에 목살, 등갈비, 양념돼지갈비, 통삼겹살, 돼지껍데기는 물론 숯불 닭갈비에 떡볶이, 모듬튀김, 잡채, 매쉬포테이토 등 다양한 메뉴를 무한리필해 먹을 수 있는 셀프바를 설치했다. 특히 최근 업그레이드한 '후려 페퍼스테이크'는 내가 좋아하는 사이드 메뉴를 담아 나만의 플레이팅으로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애슐리 퀸즈, 자연별곡 등 패밀리레스토랑형 뷔페도 평일 런치를 1만9900원에 제공해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문정동 애슐리 퀸즈에서 만난 최은미(56) 씨는 "친구들과 모임을 하기 위해 왔다"며 "여차피 식사 후 차도 마셔야 하는데 이곳은 평일 점심에 1만990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에 각자 취향에 맞는 음식과 차까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서 모임 장소로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할 만큼 저렴한 초저가 주점들도 인기다. 주로 일본풍의 이자카야로 하이볼 한 잔에 3900원, 생맥주 한 잔에 1900원, 꼬치안주 하나에 900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생마차, 쏘시지요, 단토리 등 초저가 콘셉트의 이자카야는 생긴 지 채 1년이 안 된 신생 브랜드지만 가파르게 가맹점을 늘리고 있다. 대학가 먹자상권에는 이들 이자카야에만 학생들이 가득하다. 외식업 전문가인 본지 박형희 발행인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하나 같이 탄탄한 가성비비를 주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며 "짜다고 해서 저렴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고객들은 금방 외면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메뉴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몰럭서리로 떠오른 디저트 열풍 올해도 지속**  
최근 SNS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은 디저트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모양과 색깔의 각종 디저트가 고객들의 눈과 입을 홀리고 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에서 디저트의 역사는 불과 15~20여 년으로 일천하다. 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외식 아이템으로 디저트를 꼽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다.

[ 식품외식경제 창간 28주년 발행인 기념사 ]

# 위기 극복하고 성장하는 식품·외식업 기대



박형희 발행인

'식품외식경제신문'이 창간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간 이후 지금까지 식품·외식업계의 정론지이자 전문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임직원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창간 28주년을 맞으며 오랜 세월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식품·외식업계 관계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매년 창간기념 특집호를 제작하면서 '올해는 식품·외식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행복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식품·외식업계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이상 기후로 인한 농산물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분쟁, 미·중의 패권 경쟁 등 불안한 세계 정세가 초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과 1100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등 경영환경 악화 현상은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감사대상기업(외감기업) 3만2032곳의 2022~2023년 개별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발표입니다. 고금리로

금융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외감기업의 경영분석 결과가 이렇할 진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어떨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여 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 감소에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한계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년 새 자영업자 9만4000명이 감소했고 자영업 폐업률이 10%에 육박한다는 통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동안 정부도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급등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지급을 하는 등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빠진 기업은 과감하게 지원해 살려야 하지만 경쟁력을 상실해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은 효율적인 출구전략을 만들어 충격을 최소화한 가운데 폐업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한계상황에 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식품외식경제신문 독자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멋지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외식경제신문은 자매지인 '월간식당'과 함께 더 깊고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식품외식경제신문 창간 이후 지난 28년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몰 럭셔리', '한 입의 사치' 등 수식으로 통하는 디저트는 초창기 주로 외국에서 들여온 디저트들이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K-푸드 열풍과 뉴트로, 할매니얼 트렌드에 힘입어 약과, 양갱, 주약 등 전통한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이한 점은 외식 메뉴의 경우 한때 히트메뉴였다가 인기가 사그라들더라도 아예 그 메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디저트의 경우 인기가 사그라들거나 특정한 이슈가 나타나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2013년 당시 망치로 깨먹는 과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독일의 '슈니발렌', 벌집 아이스크림, 대만의 '대왕카스테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탕후루 또한 급속하게 점포가 사라지고 있어 제2의 대왕카스테라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골목상권 전문가 김영준 씨는 EBS TV 프로그램 'EBS비즈니스리뷰'에서 "유행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돈을 벌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유행이 폭발적일수록 냉각 속도도 빠르다"며 "유행했던 아이템들의 공통점은 단지 경험에 그쳐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시장성의 한계가 존재하고, 생존하는 아이템의 특징은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 단순 유행이 아닌 문화로 정착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디저트는 침체된 외식시장에서 활기를 띠는 유일한 아이템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를 론칭해 오픈런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0일에는 미식과 소풍, 예술이 어우러진 프리미엄 미식플랫폼 '하우스 오브 신세계'를 선보였다. 잠실 롯데월드몰에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노티드'가 입점했고, 더현대 서울은 '테디베르 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디저트 팝업스토어로 인기다. 유통 대형 3사가 디저트로 고객 확보 대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명 디저트 업소는 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해 '디케팅'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젊은 세대들은 디저트를 즐기는 행위로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SNS 인증을 하나의 놀이로 여기는 만큼 디저트 시장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 기자 수첩

##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처음으로 장래 희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게 대학에 가서였다. 어릴 때는 막연히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장래 희망으로 적어내곤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교사가 돼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사범대에 진학해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묻는 주변의 물음에 그제서야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새겨질 사건도 없었기에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 '그냥'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다. 교직을 떠나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나는 동문회에 가면 지금도 돌연변이 취급을 받는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쳤던 의사들이 환자를 떠났다. 의대생들은 교실에서 짐을 챙겨 나갔고 전공의들은 환자를 떠난지 4개월이 지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필수요를 제외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했고,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다른 대학병원들과 대한의사회를 필두로 한 개원들은 18일 휴진을 결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필수요 개혁 기회를 낳았고, 전공의를 돈벌이로 내모는 진범 찾기에 돌입했다.

국민 건강을 이유로 삼기에는 썩맞은 규모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의대 증원 발표도 문제였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이기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단 한명의 증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만든 상황이다.

가끔 친한 의사들에게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물으면 예상과 다른 대답이 돌아온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의사가 되고 싶거나, 환자에게 사랑받는 의사가 된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교수 모두 단순히 병원이란 장소로 돌아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의사가 됐다는 희망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쳤던, 환자를 살린다는 그때의 명분을 갖지 않는다면,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



## '밥상 물가' 타령에 무너질 위기의 '밥상'

정보통신신문 차중환 기자

"한번 사면 대학교 때까지 쓸 수 있는 컴퓨터!"

4, 50대 아재 정도는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문구다. 가슴 한 편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 이름, '알라딘'이다.

'알라딘' 컴퓨터는 90년대 초반 당시 돈으로도 100만원을 호가하던 어마무시하게 비싼 물건이었다.

말그대로 대학교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어필이 됐다. 필자도 거의 1년을 즐긴 기억이 있다.

12MHz의 CPU(책가 아니다), 1MB의 메모리에 무려 40MB에 달하는 하드디스크 용량은 과연 내가 이 하드디스크를 살아 생전에 다 채울 수 있을까 가슴 두근거리며 온갖 게임을 복사해 넣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기술이란, 지수 함수의 곡선을 그리며 발전하는 것인지라 '알라딘'은 대학교는커녕 초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폐급 물건이 되어 베란다로 치워졌다.

30여년이 지나 이제는 '알라딘'의 수천, 수만배 성능의 PC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구현되고, 인공지능(AI)을 담은 PC가 출시되는 시대다.

특히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AI PC의 잠재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바다.

일추 기본 장착된 기능만 봐도, PC가 알아서 파일을 찾아주고 이전 작업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그림을 똑딱 그려준다. 듣도보도 못한 나라의 언어를 실시간 번역해주기도 한다.

AI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지금이 이 정돈데 현재 스마트폰 앱 생태계만큼 AI 앱이 활성화되면 어떤 서비스들이 우리네 삶을 바꿀 놓을지 가능성이 안 된다. 이쯤되면 '알라딘' 입장에선 마법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딘' 시절 플로피 디스크를 바꿔 끼우는 순간의 그 가슴 떨림이 그리운 건 왜일까. 드르륵 드르륵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라도 컴퓨터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던, 그것은 마치 컴퓨터와 나의 대화와도 같은 것이었다.

PC는 성능을 얻고 로망을 잃었다. 아니, 그냥 내가 아재가 다 된 거다.



## 식당, 장인정신만으로 될까?

한국농업신문 정세론 기자

여름 농산물의 대표 품목인 수박이 지난 달 말부터 출하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서시장 내 유통업자들은 수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는 수박 파렛트 출하 조치 명령에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초부터 수박 출하 시 5톤 이상 출하 차량은 산지 선별 후 파렛트로 출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수박 출하용 5톤 이상 차량은 시장 내 출입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안법 제82조 2항 22호에 따른 단계적 행정처분 1차(경고)→2차(업무정지 10일)→3차(업무정지 1개월)를 부과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5톤 이상 출하 차량 제한으로 수박값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실제 강서시장 내 관계자는 5톤 트럭이 들어오지 못해 작은 트럭들이 여러 대로 나눠 오게 돼 물류비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기존 강서시장에 출하했던 농가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존에는 산지에서

출하 작업한 뒤, 시장 내에서 선별, 포장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파렛트 출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

파렛트 작업은 산지에서 필수로 해야 하고, 선별, 포장은 산지에서 직접 하거나 선별장을 거쳐야만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

즉 농가에서는 기존보다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올라가는 셈이다. 더불어 선별장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도 생겨 최종적으로 물류비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돼 수박 가격은 상승하고, 농가는 제값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계획했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현재 유통업, 출하자, 농가, 소비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시장 내 '금수박'이라는 오명이 남기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 경제부총리의 사과농가 방문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한 매체의 첨단학과 증원 보도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당시 설명에 없던 증원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 첨단학과에서 569명, 비수도권 4년제 대학 10곳 첨단학과에서 576명 등 총 1145명이 증원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1000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는 의대 증원, 교대 정원 축소, 무전공 선발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이 변수로 꼽혔다. 5월 31일에 발표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이목이 쏠렸던 이유다. 2025학년도 대입이 역대급으로 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첨단학과 증원과 관련된 내용을 누락시킨 것은 교육부의 실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첨단학과 정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도둑 증원'을 시행한 것은 수험생과 학

부모를 기만한 행위로 비춰진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을 두고 무전공 선발, 의대 증원 등을 통해 사전 고지제 의미를 무색케 한 것도 모자라 고지 없이 첨단학과 증원에 나선 것이다.

사전에 교육부가 첨단학과 증원과 관련해 고지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첨단학과 증원과 관련해 일언부언 하지 않다가, 한 매체에서 보도하자 그제서야 2025학년도에 첨단학과 증원을 인정했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증원 인원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을 우려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학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첨단학과 증원에 대한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도둑 증원'이란 악수를 두고 말았다. 교육부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이유다.



# 언론인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160여 명 규모로 확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언론인들의 글로벌 취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도 해외연수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언론재단의 해외연수사업 확대는 현업 언론인들의 취재 및 교육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에 따른 언론사의 인력운용 여건, 해외연수의 실질적인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기, 중기, 장기 형태로 나눠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장기연수는 내년도 20명 지원을 목표로, 올해 10명의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 6월 모집공고 후 10월에 대상자를 선발하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출국하는 조건이다.

이밖에 1년간의 장기연수가 어렵거나, 해외취재 및 연구 등의 활동을 희망하는 언론인들을 위한 중기(1개월~6개월) 해외 과정도 신설하여 내년 초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컨퍼런스나 회의, 전시회나 박람회 등 취재 보도 가치가 있는 국제 행사에 참여코자 하는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해외 단기연수과정도 마련, 지원한다. 해외 단기연수 참가자는 올 하반기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단은 KPF디플로마, 국제 언론교류 등 해외과정이 연계된

기존 연수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수를 확대하는 등 언론인들의 글로벌 취재 역량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재단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참가 언론인 규모는 60여명이다. 내년에는 160여 명으로 약 100여 명의 언론인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인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언론인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언론의 글로벌 취재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들에게는 더욱 심층적인 국제뉴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90년 전통의 기성 언론에 스타트업의 DNA를 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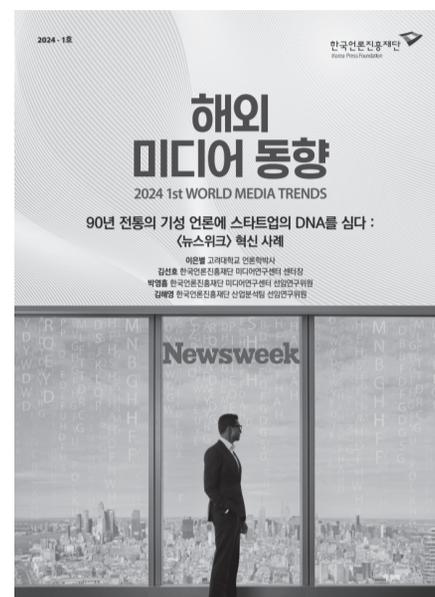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지난 5일 2024년 '해외미디어동향' 1호 '90년 전통의 기성언론에 스타트업의 DNA를 심다'를 펴냈다. 뉴스위크(Newsweek)의 CEO 데브 프라가드와 인터뷰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모델 개발과 평가지표 설정, 내부 의사소통 과정, 국내 언론의 시사점 등을 탐색했다.

디지털 전환은 한국 언론의 해묵은 과제이다. 언론사별로 온라인 지면 강화와 유료구독 모델 도입 등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규모와 예산, 인력의 한계로 인해 회의적인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프라가드는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과 미디어는 지속가능한 재정적 토대에 기초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독자 수요의 탐색, 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매체 확대와 뉴스 전달 방식의 최적화, 편집국과 경영진 간의 협업을 강조한다.

보고서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대형 플랫폼 기업과 협력 사례, 독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새로운 성과지표의 수립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의 필수불가결한 보완재'로서 전통적인 주간지의 저널리즘적 가치와 AI의 활용, 플랫폼 확장 등 디지털미디어의 특성 간 조화를 추구한 리더십을 확인했다.

광고 수익, 페이지뷰 등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담은 '목표지향적 핵



심 결과(이하 OKR: objective key results)'를 기자와 뉴스 가치의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고, 구성원을 설득해 나갔는지 살펴봤다. 또한 특종이나 속보 경쟁을 넘어서 기사의 영향력, 품질, 독창성 OKR에 포함된 항목을 소개, 언론사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뉴스위크의 공정성 측정기는 독자들이 기사의 공정성을 5가지 정도(좌편향 불공정, 좌편향, 공정, 우편향, 우편향 불공정)로 측정토록 하는 기준으로 뉴스위크의 주요 기사 하단에 표시되며, 기사 작성과 이해의 보조구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해외 미디어 동향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미디어 업계에 참고자료로서 미디어 산업과 관련한 해외 이슈를 국내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계간 '해외미디어동향'을 발간하고 있다.

# 미디어 세상 속 안내자, '미디어교육사'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언론재단)과 함께 오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디어교육사 1급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7월 26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 공고는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1급 자격시험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미디어교육 분야 실무경력이 합산 3년 이상이거나 미디어교육 강의경력이 응시일 기준 직전 3개년 간 총 100시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문체부가 지난 2022년 미디어교육사 2급 자격시험 운영을 시작한 이후 총 3회의 시험을 거치는 동안 1급 합격자 64명, 2급 합격자 341명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미디어 분야 전문 강사로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이용 증가

에 따른 부작용 예방,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및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한 비판적·입체적 사고력 배양, 올바르게 안전한 미디어 사용법 교육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사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미디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늘봄학교' 대상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미디어강사에 대한 현장 수요에도 대응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교육청, 충북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내 초등학교 100개교를 목표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미디어강사 파견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1,000개교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1회 실시하던 미디어교육사 2급 자격시험을 2025년부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 분야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전직 언론인·교사, 방과후·돌봄 강사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를 홍보하고 대학에 미디어교육사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등 시험 응시자도 적극 모집할 예정이다. 응시자들이 자격시험을 좀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원 내에 온라인 교육(이러닝)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유관 기관과 함께 자격증 취득과 정도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성희 미디어강사는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과몰입 방지, 미디어 문해력과 비판력 제고 등을 위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좋은 자질의 강사들이 더욱 많이 육성되어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창작자에 대한 투명하고 정당한 보상 필요성 강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콘래드에서 열린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정기총회'에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

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이다. 이번 총회는 2004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국경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오가면서 세계 저작권 단체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 인공지능(AI) 발전과 같

은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저작권 규범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창작자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이번 총회에 앞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Marcelo Castello Branco) 이사회 회장과 가디 오론(Gadi Oron) 사무총장

을 만나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회원인 한국의 5개 단체를 소개하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음악 분야 외에 영상과 시청각, 시각예술, 안무, 어문 등 분야에서도 창작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한동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이사장, 광

영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홍성일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대표 등 국내 저작권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음악저작권 해외 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신탁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확대를 지원하고, 집중관리제도 미도입·초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청와대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청와대재단(이사장 윤병세, 이하 재단)과 함께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6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청와대의 건축과 조경, 미술품 등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강좌 '청출어람, 청와대학'을 총 3회 진행한다.

첫 번째 강좌는 지난 27일에 진행됐으며, 사진과 사료로 보는 청와대의 모든 것의 저자이자 전 청와대 출입기자인 백승렬 연합뉴스 사진부 선임 기자가 청와대 건축물과 가구, 그림 등을 통해 청와대 곳곳의 역사를 소개했다.

이어 7월 25일에는 청와대 조경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장이 대통령 기념식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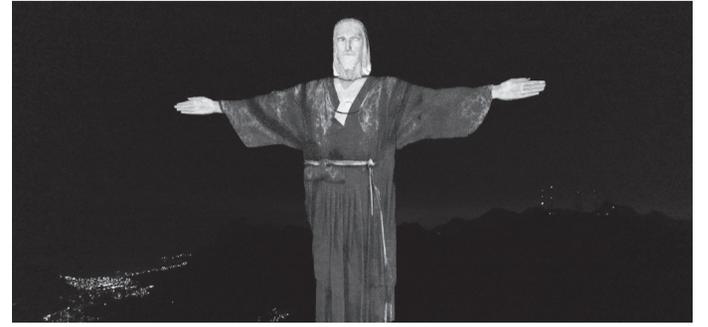
중심으로 청와대 조경의 가치와 의미를 이야기한다.

또한 8월 29일에는 예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소장 미술품 전시조사와 청와대 작품 설치 기획에 참여했던 정준모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공동대표가 청와대 소장 미술품의 가치와 학예사의 역할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어린이(8~13세)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식수 및 청와대 나무의 상징과 의미를 탐방하는 '청와대 나무가족'도 마련했다.

이 행사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특히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청와대의 나무들' 저자이자 청와대 수목 전문가인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특별 해설을 맡는다.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청와대 각 공간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을 탐방하는 '푸른 청와대, 틈틈이 탐험'도 진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며, 참여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급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 한국과의 우정 위해 브라질 예수상 한복 입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주브라질한국문화원(원장 김철홍, 이하 문화원)은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주브라질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임기모), 진주시(시장 조규일), 브라질 니테로이시, 예수상 관리기관과 협력해 브라질의 대표 상징물인 예수상에 한복 이미지를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5일까지 열리는 브라질에서의 '한국의 빛-진주실크등' 전시와 오는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브라질의 예수상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전통 의상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예수상은 한국의 오방색과 브라질 국기의 색상을 상징

하는 청색 철릭 도포를 입었으며,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로고 색상에 맞춘 슬피를 땀다. 이번 한복은 진주실크 홍보대사인 이진희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했다.

지난 8일 니테로이 현대미술관 메인홀에서 개막한 '한국의 빛-진주실크등' 전시는 문화원과 진주시, 니테로이시, 니테로이 현대미술관 등 양국 정부와 지자체, 현지 문화예술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업한 성과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적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실크 명산지 중 하나인 진주의 실크를 사용한 등불로 만든 터널과 3차원(3D) 달 조형물, 진주시 관광 마스코트 '하모' 조형물, 한복 전시 등을 통해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선보인다.

# '호국보훈의 달', 자전거 여행으로 안보 관광 자원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안보 관광과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15일,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6.25 전쟁 주요 격전지와 기념시설 등을 자전거로 순례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안보 및 자전거 여행 전문가 차백성 학군사관후보생(ROTC)자전거전국연합회 회장과 이흥희 전 해병대 사령관, 김태진 전 코렉스 대표, 나도채 국토탐방연맹 대장, 문체부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과주,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안보 자원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주요 전적지와 주요 참전국 기념시설 등을 참전국들과의 교류 확대 및 국민의 안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조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이를 자



전거 여행과 접목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 관광 관련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인촌 장관이 방문한 춘천과 가평은 자원조사 과정에서 자전거 여행으로 접근하기 쉬운 대표적 전적지와 기념시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북한 강 자전거길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오전에는 '춘천지구전적비'와 '에티오피아한국참전기념비'를 방문했다.

오후에는 가평읍에 있는 '영연방참전기념비'와 북면에 있는 '호주 전투기념비', '뉴질랜드 전투기념비', '프랑스 대대참전기념비', '캐나다전투기념비', '미국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등을 방문했다. 가평군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참전용사와 후손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길을 통해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필리핀과 베트남도 공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5일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를 비롯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

폴,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각 국가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 교류의 새 장 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우즈베키스탄 문화부(장관 오조드베크 나자르베크코프)는 지난 14일 '문화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문화 분야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 5개국 방한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국가이다. 올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문화 협력 의향서'는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관심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의향서는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과 예술 분야 전문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양국 개최 예정 문화행사에 대한 상호 참여 △스포츠 기관 간 협력 등 문화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중앙아시아 지역 교역의 관문인 우즈베키스탄 등 실크로드의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2025년 10월 개관 예정)를 준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는 '아시아스토리텔링 위원회'를 운영해 현지 이야기를 발굴·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세종학당 7개소를 통해 양국 간 언어문화 교류를 지속하고, 한국 문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세종문화 아카데미'도 확대 운영(2023년 3개소→2024년 6개소)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해 9월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개도국 국가대표 초청 합동훈련(펜싱, 23명)을 진행한다.

관광 교류도 확대된다. 올해 3월에 신설된 한국관광공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홍보지점을 중심으로 현지인의 주 관심사인 의료관광과 교육 여행 활성화를 지원하고 타슈켄트 국제관광박람회 한국관 운영(2024년 11월)을 통해 방한 관광 홍보를 강화한다.

회원사 동정

농수축산신문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



농수축산신문(발행인 길경민)이 '2024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농수축산식품기업, 관계기관, 농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서 및 공적조사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메일(hrout0223@afnews.co.kr)로 받는다. 양식은 농수축산신문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시상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2점), 농촌진흥청장상(3점), 농수축산신문사장상(4점) 등이다.

문의: 02-585-0091(내선 257)

불교신문

불교신문 홍보대사 위촉

불교신문(발행인 진우스님)은 지난 20일 신문사 미디어룸에서 관서



현보살(가수 서현진)과 트로트가수 고정우, 쇼핑호스트 강동섭 등 3명을 새롭게 '불교신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불교신문 사장 오십스님은 3명의 홍보대사에게 위촉장과 함께 수안님의 선서화를 각각 선물로 전하며 홍보대사로서 불법홍포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뉴스

새만금 개발사업 업무협약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4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준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중소기업중앙회) 개발사

업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계 참여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BS산업) 개발사업 추진 제반사항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이다.

치의신보

RUN 페스티벌 9월 개최



치의신보(발행인 박태근)를 발행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9월 1일(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제14회 스마일 러ンを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4000명을 모집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16일까지다. 참가 신청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5Km와 걷기 코스의 경우 4만5000원, 하프와 10Km 코스는 기록 적이 추가돼 5만 원이다.

문의: 02-2632-0912

한국건설신문

제1회 스마트기술동영상 공모전 안내



한국건설신문(발행인 양기방)이 창립한 스마트건설교류회가 올해로

회원사 개편

홈페이지 개편

세무사신문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이 홈페이지를 개편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단에 메인 기사를 전면 배치해 현재 큰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메인화면 내 세무사신문 PDF, 세무사 TV 등도 함께 소개한다.

세무사신문 홈페이지 각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다. △회무 △세정(조세뉴스, 사회경제, 예규·판례) △오피니언(기고, 인터



뷰) △기획 △People(분회소식, 지방회소식, 회원소식, 회원경조사).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신문 홈페이지(webzine.kacp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타임즈

제15회 물 산업 미래비전포럼 및 전시회



환경타임즈(발행인 유철)는 '제15회 물 산업미래비전포럼 및 전시회'를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환경타임즈, 상하수도신문이 주최하며 환경타임즈, 환경방송GKBS, 한국물환경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포럼 주제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물 산업 활성화(물과 에너지)'이다.

참가접수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타임즈 홈페이지(www.envtime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281-4114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회장·발행인 김광탁 명예회장·편집인 박두환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함정기 김관홍 정재환 김종철 | 상임고문 방재홍  
이사 이근호 박연준 강현욱 김중규 | 감사 백용태 오경섭  
홍준 방두철 | 고문 함용현 김시중 윤택우 이덕수 양영근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34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69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4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34년 전통 인쇄 기술력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종로로 50-1, 2층  
Tel. 관리부 02) 362-1199 / 영업부 02) 362-6877 / 전산실 02) 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운수동)  
Tel. 02) 2684-3377

2024년 5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4.05.01.~2024.05.31.)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서울 다50812	히즈타임즈	미코히타(주)
서울 다50811	KDJC한국디제이클럽	KDJC한국디제이클럽사
서울 다50810	서울강남청소년 문화예술신문	서울강남청소년 문화예술신문사
대전 다01339	정보매거진청사초롱	정보매거진청사초롱사
전남 다00450	완도스토리	완도스토리(유)
전북 다01325	전북오늘신문	전북오늘신문(주)
경상 다01566	주간 하동	(주)주간 하동
경남 다01565	의령의소리	(주)의령의소리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2022서울조정2094·2095·2096 정정·반론·손배청구

독자가 기부 동기가 잘못 기재된 보도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보도와 관련, 사회공헌 보도에서는 기부자의 입장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50대 독자가 한 대학교에 전 재산 30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부처를 결정하는 데에는 해당 대학교 출신인 지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던 중 부동산 임대수익이 장학금으로 쓰일 것이라 기대를 했으나, 해당 대학교 출신 지인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해당 대학교 측이 언론에 임의 배포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에서 1,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학교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보도를 하였음을 강조하며,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할 의사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회공헌 보도에서 기부자의 입장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는 후 현재 신청인과 기부처 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합의 해제가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했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책자발간

간호사신문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윤리 사례집

간호사신문(발행인 탁영란)을 발행하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마주치는 일반적인 사례들을 윤리적으로 분석해 엮어낸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윤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 개발·분석·집필은 한국간호윤리학회에서 맡았다.



간호윤리 사례집은 환자를 간호하며 제기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간호사가 현실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됐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고민하는 실제 문제들을 윤리적인 시각에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간호윤리 사례집에는 대한간호협회가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토대로 11가지 주제 아래 총 35개의 사례가 실렸다.

가격: 18,000원 / 문의: 031-338-1004,5

불교신문

모정불심

불교신문(발행인 진우스님)을 발행하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모정불심'을 발간했다.



출가수행자들의 생애와 수행에 대한 글을 30년 이상 꾸준히 써온 박원자 작가가 '좋은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화두를 들고 여러 스님들을 찾아 질문하고 얻은 귀한 가르침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작가는 대학시절 불교에 입문한 뒤 꾸준히 마음공부를 했는데, 부모가 되자 개인으로서의 수행과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의 수행이 많이 다르단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스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히 더 귀를 기울이게 됐다.

스님들에게 듣는 어머니 이야기는 곧 출가 이야기이기도 하다. 출가할 때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바로 키워주신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연도 다양하다. 때로는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따듯하게 위안을 받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 박원자 작가는 출가수행자들의 생애와 수행에 대한 글을 30여 년 이상 꾸준히 써온 불교전문 작가다.

가격: 19,000원 / 문의: 02-2031-2070

회원사 발행인 칼럼 | 기독교연합신문 양병희 사장

균형이 필요한 시대



균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균형을 잃을 때 추락하든지 무너지게 된다. 영양의 균형이 중요하다. 건축할 때도 균형을 잡아 주는 추인 다림줄 대로 굳게 쌓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진다. 자동차의 네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안전하고 새의 두 날개가 균형 있게 움직일 때 잘 날 수 있다. 모든 자연의 원리에는 균형이 있다.

사람도 자·정·의가 균형을 잘 이룬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기업도 노사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기업이 된다. 정치도 여야가 균형을 이뤄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다. 국제 관계도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때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 사회도 의무와 권리, 정의와 평등이 균형 있게 구현될 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회를 꿈꿀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된다. 반대로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비주의자로 전락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균형을 이뤄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대이다.

재앙과도 같은 저출산, 소득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남녀 불평등과 세대 갈등 같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건설적 정책토론과 협치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균형 잡힌 초대교회를 보라.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으며, 가족적이면서도 무례하지 않은 교회이다.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신전하면서도 포근함이 있으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이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교육과 훈련이 철저하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다.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정하고 '균형 목회'란 목회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며 목회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성숙, 공예배와 삶의 예배, 대그룹과 소그룹, 구제와 전도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에,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신앙이 균형 잡힐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구원 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행 2:44-47).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드린다.



7월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7월 1일(2004년) 한국식품의약신문

7월17일(1968년) 역사공론

7월 2일(1990년) 한국성결신문

7월21일(1999년) 한국건설신문

7월 3일(1991년) 화광신문

7월31일(1992년) 환경타임즈

7월16일(1965년) 중소기업뉴스

# 전문건설인의 자부심이 활짝!

## 대한민국 전문건설인의 권익과 경쟁력을 키워 드립니다

'건설 코리아'의 명성을 완성하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전문건설인과 함께해온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전문건설인과 함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새로운 건설문화와 비전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전문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각종 법령정보 제공/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정부수탁사무 처리/  
인정기능사 업무/업종별 기술개발지원/건설업 통계조사/회원사 권익증진 및 고충처리

